

용기 낸 이강인, 포용한 손흥민...축구대표팀 '탁구사건' 봉합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여론의 못매를 맞은 이강인이 영국 런던으로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사진=손흥민 인스타그램 캡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 내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에이스' 손흥민(토트넘)과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파리생제르맹·PSG)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탁구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이 영국 런던으로 가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 용서해 달라" 손흥민, 대표팀 파별 일축 "편 가르기, 사실과 무관"

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 용서해 달라" 손흥민, 대표팀 파별 일축 "편 가르기, 사실과 무관"

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 용서해 달라" 손흥민, 대표팀 파별 일축 "편 가르기, 사실과 무관"

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 용서해 달라" 손흥민, 대표팀 파별 일축 "편 가르기, 사실과 무관"

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 용서해 달라" 손흥민, 대표팀 파별 일축 "편 가르기, 사실과 무관"

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 용서해 달라" 손흥민, 대표팀 파별 일축 "편 가르기, 사실과 무관"

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 용서해 달라" 손흥민, 대표팀 파별 일축 "편 가르기, 사실과 무관"

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 용서해 달라" 손흥민, 대표팀 파별 일축 "편 가르기, 사실과 무관"

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 용서해 달라" 손흥민, 대표팀 파별 일축 "편 가르기, 사실과 무관"

높이뛰기 이상혁, 체코 실내대회 2m30으로 우승

시즌 두 번째 1위...3월 세계선수권 2연패 도전



한국 육상 '높이뛰기' 간판 이상혁(27·용인시청)이 올해 두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상혁은 21일(한국시간) 체코 네흐비즈디에서 열린 2024 세계육상연맹 인도어투어 네흐비즈디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30

을 넘어 1위에 올랐다. 1차 시기에서 2m18을 가볍히 넘어 이상혁은 2m25에선 1, 2차 시기에 바를 건드렸지만, 3차 시기에 성공했다. 2m25를 넘어 이상혁은 에드가 리베라(멕시코)를 제치고 우승을 확정했다. 이후 높이는 부담을 덜고 뛰었다. 2m30에서도 1, 2차 시기에 실패했으나, 3차 시기에서 바를 넘었다. 2m34로 높이를 올린 이상혁은 1, 2차 시기에서 바를 건드린 뒤 3차 시기를 시도하지 않고 경기를 마쳤다. 이상혁은 지난 11일 올해 첫 국제대회였던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높이뛰기 대회에서 2m33으로 준우승했다. 이어 14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높이뛰기 대회에서 2m32를 넘어 올해 첫 우승에 성공했다. 그리고 올해 3번째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2월 실전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상혁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이동해 다음 달 1-3일 열리는 2024 세계실내선수권에 출전한다.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이상혁은 한국시간으로 3월3일 오후 8시50분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 나선다.

이강인, 스포츠스타 평판 2위→50위 밖 추락

손흥민, 지난해 8월부터 1위 유지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2위였던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탁구 사건' 이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1-3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측정된 스포츠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 4702만3309개를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지난해 8월부터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손흥민은 2월 브랜드평판지수가 679만

7459로 분석됐다. 지난 1월(805만9914)과 비교해 15.66% 하락했지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위 황희찬은 브랜드평판지수 453만3561, 3위 김민재는 380만1034로 나타났다. 4위는 야구 선수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5위는 박지성(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이다. 지난해 2위였던 이강인은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아시안컵에서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탁구 사건의 여파가 컸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손흥민 브랜드는 링크분석에서 '응원하다, 고생하다, 위로하다'가 높게 나왔다"며 "키워드 분석에서는 '국가대표, 주장, 토트넘'이 많았고, 긍정 비율이 80.7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류현진, 12년 만에 청주구장에서 던지나...통산 7승2패

정규이닝 최다 탈삼진·완봉승 기록한 구장...시설개선 후 올해 6경기 배정



'괴물' 류현진(37)의 피칭을 총괄 청주에서 다시 본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류현진과 계약을 체결한 한화이글스는 시설 개선 완료로 앞둔 청주야구장에 올해 6경기를 배정할 계획이다. 한화이글스는 류현진과 총액 170억원 계약

에 합의하고 2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류현진의 경기를 청주구장에서 직관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주야구장은 한화이글스의 제2홈구장이다. 좌우 펜스 100m, 중앙 펜스 115m 규모로 작아 한국판 쿠어스필드 구장으로도 불린다. 관람

객은 1만4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류현진은 7시즌 동안 청주구장에서 11경기를 치르며 7승2패 평균 자책점 3.25를 기록했다. 2007년 6월에는 LG를 상대로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했고, 2010년 5월 LG와의 경기에서 정규이닝 최다인 17탈삼진을 기록했다. 청주구장은 '코리아특급' 박찬호(51)가 2012년 4월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박찬호는 6⅓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8대 2 승리를 견인했다. 당시 한화 대전 홈구장 리모델링으로 같은해 5월까지 한화의 홈경기는 청주에서 진행됐다. 이 구장은 코로나199와 KBO의 시설 노후 지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전까지 한 해 5~12경기가 열렸다. 시는 19억원의 들여 지난해 9월12일부터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말까지 인조잔디, 내·외야 안전 펜스 설치 마무리되면 KBO는 현장 실사를 거쳐 경기장 운영 적합 여부를 청주시와 한화이글스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화이글스 관계자는 "경기 진행에 무리가 없는 환경이 갖춰지면 6경기를 편성할 예정"이라며 "계약이 성사되면 경기 배정에 따라 청주에서 류현진의 피칭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동료' 손흥민·김민재, 오는 8월 한국서 적으로 만난다 여름 아시아 투어 일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공격수 손흥민(토트넘)과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한국에서 적으로 만난다. 스포츠 매체 '디 에슬레틱' 등 북수의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은 한국에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뮌헨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두 팀은 여름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는다. 구체적인 경기 시작 시간과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나, 8월2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트넘의 경우 7월28일에 K리그 울스타팀과 친선 경기를 치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보도처럼 토트넘과 뮌헨이 맞대결을

벌이면, 한국 축구의 핵심 자원인 손흥민과 김민재가 고국에서 적으로 만나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손흥민은 김민재뿐 아니라 전 팀 동료였던 공격수 해리 케인(잉글랜드)과도 재회한다. 케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했다. 토트넘을 떠나기 전 손흥민과 함께 좋은 호흡을 선보였다. 손흥민과 케인은 지난 8시즌 동안 47골(손흥민 24골, 케인 23골)을 만들며 EPL 최다골 합작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한편 토트넘이 한국을 찾았다면, 지난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 토트넘은 현재 2023-2024 EPL에서 14승5무6패(승점 47)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이다.